

#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9년 6월호

통권 제 192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 5월 교우소식

### 새 가족

- ❖ 원주연(104구역), 종로구 재동 32-4  
미성약국(신선자,오군자권사 인도)
- ❖ 이경아(청년부), 강북구 미아2동  
☎ 791-1748.
- ❖ 김만기(105구역), 종로구 가회동 207  
(조정순권사, 윤정희교우 인도)
- ❖ 추영희(103구역), 종로구 경운동 25-2  
(장미화권사 인도)

### 감 사

- ☎ 송영자권사, 4월 26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 유연준권사, 24일(주일), 점심식사제공.
- ☎ 백낙환집사·박숙란장로, 10일(주일),  
점심식사제공
- ☎ 장은라·유명옥·정영란권사, 박정희집사,  
어버이날 독거노인 선물제공(과일, 과자, 빵, 물등)

### 결 혼

- ❖ 한상규군(박형철교우 최문희집사 장남,  
문창아 권사 외손), 23일(토) 오후 1시,  
안동교회 본당
- ❖ 한정현·박두희교우, 5월 9일(토) 오후 1시,  
안동교회 본당.

### 출 산

- ❖ 김정아·서용만집사  
(김성렬집사·지윤희권사장녀), 7일 득남.

### 입 원

- ☎ 김남진집사, 안암동 고대병원 72동 5호실.

### 별 세

- ☎ 고 조심집사(81세, 조영자권사 부군),  
4월 27일(월) 별세, 30일 장례(목)
- ☎ 고 이정숙장로(74세, 김충기장로 부인),  
3일(주일)별세 5일(화) 장례.
- ☎ 고 김상례교우(88세. 손옥연교우 모친),  
15일(금) 별세, 18일(월) 장례.
- ☎ 고 김수묵집사(83세), 25일(월)별세,  
27일(수)장례

### 이 사

- ❖ 이상형집사·정영란권사,  
서초구 잠원동 동인트루빌 203호.
- ❖ 서용만·김정아집사,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641-20 한미가든빌라 4-B01.

## 어린이날을 맞이하며

안동어린이집 이충희 원장  
예쁜 계절 5월을 맞이하며 달력을 바라보는  
나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표를 보

는 것 같았다. 평소에도 각각 어린이들에게 늘 “너는 소중한다” “너는 특별하다” 라고 이야기 해오는 터라 이번 기회에는 시각적으로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다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이 지구상에 누구와도 똑같지 않은 “소중한 나” “특별한 나” 를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연계 수업으로 “소중한 나” 를 꾸며보게 하였다.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며 바르게 자라도록 소망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꾸며진 어린이들의 모습이 하나 둘 시작되어 안동 어린이집의 벽을 멋지게 장식하게 되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모습들이었다.



어린이들은 보이는 대로 배우고 그대로 닮아가는 강한 욕구가 있다. 또한 어린이들은 건축가와 같아서 어린이들 주변에는 준비된 환경들과 좋은 자극들을 준비하여 만지게 하고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허락해야한다. 먼저 신체적 욕구를 채워주어야 하기에 충분한 영양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인 호기심이 넘치는 어린이 시절에는 좋은 것 많이 보여 주고 많이 듣게 하고 올바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해야 한다. 우리어린이들의 각 가정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을 기초로 한 신뢰의 가정에서 자라나길 소망하고 있다. 그리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 할 줄 아는 어린이로 멋지게 성장해 갈 것이다.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서적으로 잘 표현 하며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랑스런 어린이들이 되길 기도한다.

## 서울메트로 안국역과 함께한 어버이날행사

서울메트로 안국역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 달아주기과 차나누기행사를 하여 주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날 오셔서 함께하여 주신 여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날 행사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 가시는 길 힘드시거나 목 마르시 면 역장실 들르셔서 간단하게 목도 추기시고 잠시 숨도 돌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메트로 안국역장 드림

## 사진으로 보는 5월의 안동교회

### ▶ 안동어린이집 어린이날 행사



### ▶ 유아세례식



▶ 어린이주일 행사



▶ 어린이주일 행사: 출장 커피



▶ '청려원' 에서의 구역연합 야외예배



▶ 안동교회 100주년기념 여전도회 축하잔치



▶ 신우회 초청잔치(여전도회 주최)



## ▶ 토요문화교실



## 우리가족 칭찬하기

## 안승호 오빠가 좋은점 20가지

안혜준

1. 심성이 착하다. 2. 비록 공부를 잘하진 않아도 노력한다. 3. 공부하느라 바빠 열심히 나오진 않지만 신앙심이 풍부하다. 4. 머리가 곰슬곰슬해서 '구준표' 같다. 5. 지난 19년 인생이 도덕 교과서다. 6. 비속어를 쓰지 않는다. 7. 남을 소리 내지 않고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안다. 8. 친구와 사이가 좋고, 우애를 생각할 줄 안다. 9. 자만하지 않는다. 10. 위기의 상황에서 빛을 낸다. 11. 항상 의젓하고 든든하다. 12. 가족이랑 사이가 좋다. 13. 옳고 그름을 확실히 안다. 14. 상황판단력이 빠르다. 15. 만인에게 친절하다. 16. 아빠를 잘 놀아드린다. 17. 엄마랑 대화하길 좋아한다. 18. 예의를 지킨다. 19. 동생과 잘 놀아준다. 20.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노력한다.



## 어린이 주일

유치부 교사

노주희

5월 4일은 안동교회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날,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오전에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예상과는 달리 아침부터 날씨가 매우 화창하고 따스한 햇살이 오늘 하루는 맑을 것이라고 예고해 주는 듯 했습니다. 아침에 유치부 선생님들과 아동부 선생님들이 모두모여 풍선, 페이스페인팅, 음식 등을 준비하였고, 밖에서는 어린이주일의 하이라이트 '에어바운스' 설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알게 되었고, 잠시 뒤에 아이들이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하며 에어바운스 시작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좋아할 인형 옷을 입고 아이들 손등에 도장을 찍어주며 아이들과 부모님을 안내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 둘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에어바운스 안에서 너무 즐거워했고, 선생님과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서로 차례를 지키면서 줄지어 미끄럼틀을 타는 등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 계속해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페이스페인팅을 담당하시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귀여운 캐릭터들을 그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푸짐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피자, 떡볶이, 과일, 치킨 등등 이렇게 풍요롭게 준비할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 번 감사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아이들도, 외국 가족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모든 아이들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이 매우 활발하게 다른 아이들과 뛰어 놀던 모습, 지칠 만도 한데 웃음이 끊이지 않던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순수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순수함이 가득한 곳이 천국의 모습일 것만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프로그램은 끝이 났고 아이들이 즐

겁게 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어린이주일 날씨가 매우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 없이 행사를 준비해준 모든 선생님들과 교회 지체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의 모든 프로그램의 처음과 끝, 날씨, 안전 등에 있어서 하나하나 모두 섬세하게 주관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에 전국이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논평들을 발표하고 있다. 서거 소식에 충격과 함께 깊은 애도를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권오성)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80년대 인권 변호사로서 앞장섰으며, 이후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행보에서 자기 헌신을 통해, 결국에 참여 정부를 세워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어낸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향후 상황에 제대로 반영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유가족들과 슬픔에 빠진 국민들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엄신형)는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애도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운태총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너무 충격적이다.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이 받았을 상처가 클텐데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큰 역사가 임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 녹색교회가 경제회복 이끈다

녹색성장 만이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총회 사회봉사부(부장:박래창 총무:이승열) 사회문제위원회(위원장:장명하) 주최 3차 사회포럼이 19일 호남신학대학교(총장:차종순) 명성홀에서 '경제위기와 생태적 대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구재운교수(전남대), 강성열교수(호남신대), 김영균목사(도심속살림교회), 백명기목

사(백운교회)가 패널로 참석해 경제위기의 생태적 원인을 분석하고 구약성서에 나온 경제윤리와 생태적 대안을 모색한 뒤 녹색교회로 가는 해법을 찾았다. 우선 구재운교수는 '승자독식사회'로의 이행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작은 능력 차이라도 이긴 자가 수익을 독차지하는 세상으로 변해버렸으며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경제만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녹색성장을 이루는 사회로 변화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성열교수는 레위기 25장 등 희년제도가 언급된 본문을 들며 구약성서가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들이 부요한 이들에 의해 압제당하는 사회적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그 이유를 "하나님 자신의 품성"에서 찾으려 하며,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생태학적 삶의 양식과 지속 가능한 형태의 발전 모델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발과 환경보존, 이 둘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로 성장(Nullwachstum)' 모델을 들며 가난한 나라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이 생명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을 찾아 나설 때 지금 맞고 있는 경제위기를 수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경제를 살리는 녹색교회 운동의 일환으로 공정무역을 통한 착한소비와 로컬푸드운동, 생명공동체 운영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생명 중심의 영성을 키우는 가치관을 실현시키는 것이 현 농촌선교의 과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 목사고시 예년보다 쉬웠다

2009년 목사고시가 예년에 비해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이창재)는 지난 15일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장영일)에서 1천6백81명이 응시한 가운데 올해 목사고시를 치렀다. 오전 9시 30분 설교를 시작으로 논문(술)을 비롯한 성경과 교회사 등 필기시험 5과목과 면접 등으로 진행된 이날 목사고시는 예년에 비해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목사고시와 관련, 위원장 이창재목사(효성교회)는 "어렵게 신학교에 입학하고 공부를 마친만큼, 목사고시를 어렵게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목사고시는 난이도를 없애고 쉽게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사고시는 초시 8백69명을 비롯해 재시 5백63명과 삼시 1백97명, 사시 51명, 오시 1명 등 총 1천6백81명이 응시했으며 성별로는 남자 1천2백63명과 여자 3백17명이 응시했다. 한편 목사고시 결과는 오는 8월 중에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교단법에 기초해 철저히 조사할 것

서울서노회(노회장:차광호)가 최근 이재철목사를 기소하기로 결의한데 이어 지난 14일 서울서노회 100주년기념교회대책위원회(위원장:우영수, 이하 대책위)가 모임을 가졌다.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한 대책위의 보고를 받은 임원회는 교단법에 기초해 철저히 조사할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난 4월 정기노회에서 조직된 기소위원회(위원장:장찬호)에 전 기소과정을 위임키로 했다. 기소위원회는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주명수)에 서면질의를 통해 자문을 구한 뒤 조만간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기소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대책위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사장:정진경, 이하 협의회) 및 100주년기념교회(이재철목사 시무, 이하 기념교회)의 정관, 지난 9일자로 발표된 본교단 총회장 성명서, 지난 달 23일에 열린 이재철목사 기자회견 자료, 서울 유니온교회(찰스 프린스목사 시무)의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대책위원들은 기념교회 정관 제 5조 '교인자격 및 호칭' 중 논란이 되었던 "2년 이상 출석한 교인 중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이 된 자에 한해 성실하게 주일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장로 권사로 호칭한다"는 내용외에 "목사로서 우리교회의 등록교인이 된 자는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로 호칭한다"는 내용과 관련 "정통교회가 이해할 수 없는 이재철목사의 교회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본교단 헌법에는 "전도목사는 당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재철목사는 현재 서울서노회 소속 전도목사로 기념교회는 당회가 아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 중 김병복목사(보광중앙교회)는 "연합사업임을 강조하면서도 독립교회론을 펼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라고 문제제기했다. 이날 모임에는 연합사업을 특정교회의 일로 전락시키며 협의회 설립 당시의 연합정신을 상실한 것이 주요 논점으로 제기됐으며 일부 언론매체의 대결구도식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대책위원들은 △협의회가 세운 안내판 △언더우드 일가 묘역 안내판 △정신여학교 1대 교장 묘지 안내판 등 역사성을 지닌 안내판들을 철거한 것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예수님 섬김 배워 이웃 사랑 실천하세요."

93회기 총회 '섬겨야 합니다' 주제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섬김의 현장으로 다가가기 위해 총회 교육자원부(부장:나정대 총무:김치성)는 지난 12일부터 대구 인터볼고 호텔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제하의 제40회 기독교교육(여름)지도자세미나를 개최했다.

3백여 명의 기독교교육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주인공들에게 진정으로 섬김의 정신과 자세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독교교육 지도자들에게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각 연령대에 맞춰

섬겨야 하는 이유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자원부 총무 김치성목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섬김’이란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탄식 속에 신음하는 세상에 소망을 주고 생명의 등불로서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면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여름성경학교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섬겨야 하는 이유를 알 뿐 아니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영 유아 유치부는 ‘사랑타고 섬김아이 송송~’을 주제 아래, ‘섬김 아이를 키워 내는 희망교사’ ‘섬김 아이를 키워 내는 희망 부모’ ‘주제 속으로 송송!’ ‘나는야! 전도하는 섬김 아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어린이’라는 의미의 섬김 아이를 키워내는 데 목적을 뒀다. 아동부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를 주제로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진행된다. F-J(Fun-Jesus) 원정대가 S바이러스 백신을 구할 작전 명령을 받고, 2박3일간의 성지순례 길에 올라 그 땅을 순례하며 백신을 구하게 되고, 원정대는 세상을 섬기는 섬김이로 거듭나게 된다. ‘여행’과 ‘성지순례’를 테마로 한 이번 프로그램으로 세상을 즐겁게 섬기는 섬김이로 거듭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종교등부는 섬김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과, 섬김의 대상과 실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게 된다. 이에 앞서 김치성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개회예배에서는 교육자원부 부장 나정대목사(신창교회 시무)가 ‘추억 만들기’ 제하의 말씀을 전했으며, 2009년 교육주제를 담은 교육용 단편영화 ‘매직 캔디’ 시사회가 진행됐다.

## "하나님을 기쁘시게"

칼빈 탄생 5백주년을 맞아 기념으로 열리는 제 94회 총회 주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구약: 시편 37편 4절, 신약: 요한복음 8장 29절)로 확정됐

다. 총회 주제연구위원회(위원장:황승룡)는 지난 7일 엠배서더호텔에서 제93-2차 회의를 열고 제94회 총회 주제를 칼빈의 가르침을 고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구약: 시편 37편4절, 신약: 요한복음 8장29절)로 확정하는 한편 총회 주제 해설집 발간을 위한 집필진을 논의했다.

부총회장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기부터 5년 주기로 정해지던 틀에서 벗어나 한국교회 및 한국사회가 처한 상황과 요구 등을 고려해 한 회기 본교단 총회가 내걸고 추진해 나갈 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날 부총회장은 총회 주제와 관련해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건강하고 또 잘해 왔다"면서 "앞으로 총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복음을 전하며 사회를 섬겨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주제연구위원회는 총회 주제해설에 포함할 내용으로 △성경적 이해(강성열) △신학적 이해(황승룡) △교육적 이해(박봉수) △기독교윤리적 이해(곽재욱) △실천적 이해(민경설) △목회적 이해(신동작) △영성적 이해(유해룡) △선교적 이해(이광순) △설교(총회장/부총회장) 등을 선정했다.

## 경쟁·착취가 현 시대 위기 원인

경제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대응을 지역적으로 모색하고자 지난 12일 한일장신대학교(총장:정장복)에서 총회 사회봉사부 사회문제위원회(위원장:장명하) 주최로 지역별 포럼이 개최됐다.

이는 지난 2월 26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제1연수실에서 열린 경제위기에 대한 교회의 대응 포럼이 교계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지역 신학교와 공동 마련한 것으로 이홍락교수, 조용훈교수(한남대학교), 홍인식목사(현대교회)가 패널로 나서 경제문제를 진단하고 교회의 성찰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홍락교수는 부의 불균형이 초래된 이유를 산업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한 나라들이 약소국을 대상으로 근대로의 편입을 강제한 것에서 찾았다. 그는 노동력을 '땅의 상품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동 착취가 일어났고, 이러한 바탕에서 성립된 경제학의 논리로 인해 무한경쟁의 사회로 치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성장지상주의를 지양하고 '천

천히 가는 사회'를 구축해 생산적 노동을 회복하자"면서 농촌살리기 등을 통해 생명의 대지를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훈교수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재화에 대한 탐심을 넘어서는 때 얻어지는 부산물로 보았다. 그는 물질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영적인 가치라며, 가정을 의미하는 헬라어 '오이코스(oikos)'와 규칙을 뜻하는 '노모스(nomos)'가 결합된 경제(economy)가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뜻하는 것처럼, 청지기(oikonomos)로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지구 생태계 전체를 한 집안처럼 가꾸고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흥인식목사는 "하나님 나라와 맘몬 사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질과 부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망각해 왔다"면서 하나의 종교로 치달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종말을 고하며 기독교의 해방적 영성으로 제도장치를 회복하자고 말했다.

## 복지재단, 올해 살림 어떻게 하나?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사장:윤의근)은 지난 4월 27일~28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40여 명의 시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9 시설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을 다졌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시설장들은 대표이사 윤의근목사(대구신암교회)와 좌담회를 갖고 올 한해 시설운영 관련 계획을 논의했다. '시설장 정책회의 및 워크숍'을 연 2회씩 개최해 법인과 시설 간의 사업방향을 일치시키고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연 1회 '직원 근무의욕 고취 워크숍'을 열어 위로행사를 갖기로 한 안건의 세부 방향이 다뤄졌다. 또한 이사회 결의사항인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설치와 관련해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이사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소 위원에는 본교단 산하 7개 직영신학교 및 일반대학 교수들을 참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설장들은 재단 산하 시설이라는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인사문제를 장로교복지재단에서 관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시연교수(서울장신대)를 법인 사회복지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규순박사, 이상규세무사, 이시연교수, 유수현교수(송실대)를 강사로 초청해 △리더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레시피 △세법 개정에 따른 시설회계 업무 △사회복지현장 실습 수퍼비전의 적용과 과제 △직원관리를 위한 인간관계 기술 등의 특강을 열어 시설운영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 제94회 총회 소망교회서 개최

오는 9월 개최되는 제94회 총회 장소가 소망교회(김지철목사 시무)로 확정됐다. 지난 4월29일 울릉도에서 개최된 총회 임원회는 제94회 총회를 소망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본교단 총회가 다시 소망교회에서 개최되는 것은 지난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이후 5년만이며, 소망교회는 이제까지 모두 여덟차례에 걸쳐 교단 총회를 유치한 바 있다.

## 신학교도 '3백만 열기' 가득

청년주일을 맞아 오는 5월 10일 수도권지역 청년선교대회를 앞두고 있는 총회 3백만 성도운동본부가 지난 4월 30일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서리:장영일)를 시작으로 7개 직영신대 순방에 나섰다.

이날 장신대의 목요채플은 '총회 3백만 성도운동 기념예배'로 마련됐다. 장신대 찬양동아리 '비전'의 찬양인도와 노영상교수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 1천여 명의 전교생들은 3백만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비전을 나눴다. 이날 마태복음 28장 16~20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3백만 성도운동 안영로본부장은 "3백만 성도운동은 '성령·영적각성·섬김·순종' 운동"이라며 "나무가 열릴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학교에서부터 청명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먼저 기도할 것을 촉구하며 더욱 겸손해지고 섬기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축복했다. 말씀 후에는 중보와 결단을 위한 합심기도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더 열심히 전도해 세계로 향해 나아갈 것"과 3백만 성도운동의 성공을 위해 신학교가 서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



했다. 한편 장신대에서 출발한 3백만 성도운동 기념예배는 수도권 및 지방 신학교들로 점차 확산될 예정이다.

※ [총회·연합회·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 (<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 복춘우물가

2009년 6월호 · 통권 제192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 황 영 태

편집인 : 안 중 혁

발행일 : 2009년 6월 7일